

입문

문답속에 흐르는 법리 감로수

■전등록4/문재현 옮김
스승과 제자의 문답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철한 법리. 그러나 선문답이 어찌 문답에 그칠 것인가. 법을 구하는 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싯된 견해를 찾아 정도로 이끌어주며, 법상치 않은 문답 속에서 제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 올려주니, 이야말로 진정한 감로수라 할 것이다. 전등록이 전통불교의 수백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등록은 정5권짜리 '바보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법리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 기층에 번역 출간된 것보다 원문의 취지에 더욱 근접해 있다. 조사의 참 뜻을 제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점에서 법리에 밝은 문재현 법사가 번역해 낸 이 책은 선불교가 가지는 특성의 맥을 짚고 갖가지 표현에 대한 진의를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하다.

바보보인 18,000원 (02)597-2480



에세이

푸른 남자의 '없음' 공부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박재현 지음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쓴 산문집이다. 열한 개의 짧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보고 불교를 생각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글들은 생활과 불교를 잘도 오간다. 그래서 문법이 느껴지고 불교가 느껴진다.

불교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을 반성하고, 이 땅에서 불교가 어려워야 할지를 반성한다. 젊은 열기로 차부하가던 달팽이면서도 냉정한 논조가 매섭다.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없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고 깨끗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책의 공간을, 불교를 말한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기타

신앙고백을 통한 종교적 삶

■법화행자의 초상/자일스님 편역
책바다라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면서도 부처님을 모함하고 살해하려 한 인물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또한 구제방이 성취할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법화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으며, 어떤 공덕을 공취했는가를 정리해 놓은 고려시대 고승 요광(了相)스님의 《법화행행기》를 번역한 것으로 가이하면서도 신앙을 볼 수 있는 설화를 곁들여적으로 그려나. 설화가 비슷한 내용을 법화행자 그라판 곳에 "법화보살이 강용하시라"를 근거로 분류하고 해독을 하였다. 책 속에 나오는 법화행자들의 신앙고백은 일만 보고 내달려온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종교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한다.

불교시대사 6,500원 (02)730-2500



금주의 명저순례

깨달음으로 가는 진솔한 과정

■그냥 갈 수 없는 길/이도원 지음
"바보처럼 질문을 찾아 책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할랄하게 되었고, 경건과 여러 신지식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와 불교가 이미 한 물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펼쳐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500원 (02)420-3200



유식불교의 역사, 마음구조 분석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최병식 지음
한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식불교를 쉽게 설명한 책. 유식불교에 대한 개념과 불법의 진리를 밝힌 후 인도의 유식불교 형성과정과 중국 법상종 성립을 통해 유식불교의 역사를 짚었다. 그리고 주체적 측면과 작용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런 후 삼성설(三性說)을 통해 존재와 미망(迷妄)과 깨달음의 관념을 풀어내고, 유식 수행의 5단계를 제시했다.

깨달음의 길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에서 시작함을 보여준다.

도서출판 여래 7,000원 (02)730-8976



수행자의 구도열정 고백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깨달음을 하나 얻게나/혜민스님 지음
혜민스님(도봉산 무문관)이 자신의 삶에 걸쳐있는 진영들을 모은 자전적 에세이. 출가의 인연과 세상과 다투며 버티는 자유로운, 맑게 열거된 만남들이 산사의 숲내음으로 다가선다. 어렸을 적의 아련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통렬한 해학, 그리고 참목 자란 세상 속에 거닐었던 호수를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한 이야기.

"불교의 밑바닥 속에서 들여다 본 자유는 남안이 아닌 처다보기도 두려운 서늘한 허망이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구도열정이 담담하게 묵직한 내밀한 독성으로 열린다.

돌책 7,000원 (02)323-7366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권/고영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믿리라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학,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인정사가 과하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화 및 중국과 한국의 토착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천과 같은 자료로 활용가능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침담스님 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지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 커다란 만그릇을 독차지한 채 불어넣어 자신의 입에만 말을 퍼넣는 이가십.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네 삶에 대한 구박들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시에 과만한 교수 등 9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들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증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태와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리성에 대한 연구 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책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풀릴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펴보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로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낸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화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결처럼, 때로는 겸허해 내리는 새까만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인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갈고있는 '종교로부터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계우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계우림을 휴식회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바탕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속내로 달아냈다. 영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경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색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돌쪽나라 7,000원 (02)263-1941



마음 찾는 아름다운 단편들

■그 마음을 바쳐라/김재용 지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생산을 묶었던 새끼들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썼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법. 탈진차 삼복삼이 비린내라면 맑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향내일 것이다. 과연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날까를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명안관화. 그러나 알고 있어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이 책이 그 의미를 찾게 해준다. 삶에 대한 회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등 인생의 아픔은 누구나 겪는 일. 단편이 아무런 고통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을까. 밝음의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단편이 단종처럼 깔려 있다. 그 단종의 주인은 바로 독자들.

용화 7,500원 (02)720-9372



금주의 추천도서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우리는 모두가 '나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욕심에 지쳐 한세상을 허먹이듯만 하는 사람과 삶의 본질을 알아 여유있는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을 보라. 무엇이 다른가. 단지 '나'란 무엇인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다.

이 책이 가치로운 이유는 고통받는 중생의

삶을 잡어주는 진솔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궁극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어려움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야만 새로운 무위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99년 달력

부다가야 (대표 김주환)

목조건축 나무결 빛과 멋 담야



목조 건축의 미

불교계의 도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달력업체로 손꼽히는 부다가야는 내년 달력을 딱 1종만으로 전력을 쏟아냈다. 내용은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목조건축의 나무결과 그 속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 '목조건축의 미'. 그래서 부다가야 달력에는 불교건축의 빛과 결 그리고 멋이 함께 담겨있다.

개암사 대웅보전의 어간 공포의 섬세하고 정엄한 미, 수덕사 대웅전 불교충과 불교충품 기획 제작 보급,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둔 여름불교학교 후원, 각종 어린이 불교관련 이벤트에 주력해온 부다가야는 달력제작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MF체제에 적용토록 단가를 1천원대로 낮춘것은 올해의 큰 성과.

조상들의 목조건축 속의 멋과 지혜를 현재의 시간속에 오롯이 되살려내고 있다. 단순히 1년 사용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한국 목조건축의 자료적 가치까지 고려한 달력으로 평가된다.

크기/30.0x21.0 · 인쇄/전면컬러 · 가격/1000원

부다가야 ■ 전화 : (051)865-4383 팩스 (051)865-4821